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의 평면유형에 따른 공간변용

양 세 화(울산대 교수) · 류 현 주(울산대 박사과정)

본 연구는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경로당의 내부 공간 구성에 따라 평면유형을 분류하고 분류된 유형별로 나타난 공간변용 특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2012년 7월 3일부터 7월 13일까지 관찰법과 면접법에 의해 수집하였다. 관찰대상 경로당은 총 56개로 울산의 5개 구 중 전원지역인 울주군을 제외한 4개 구에 위치한 4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 중 단지건립 시기와 세대 수 등을 고려해 선정된 56개 단지에서 각각 1개씩을 추출하였다. 관찰용 체크리스트는 경로당 전반의 물리적 및 사회적 환경 개요와 공간변용을 포함한 실내 특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관리사무소의 협조 하에 사진촬영 및 실측과 관리사무소 직원과의 보충 면담 등이 추가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은 내부공간의 구성방식에 따라 완전분리형(2R+L+K), 방분리형(2R+LK), 방통합형(1R+L+K/1R+LK), 방거실통합형(1RL+K), 완전통합형(1RLK), 거실제외형(2R+K/1R+K)의 6개 평면유형으로 범주화되었다. 모든 내부공간이 벽으로 분리되어 있는 완전분리형 평면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용자 성별에 따라 방만 분리한 방분리형이 많았는데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이거나 대규모 단지에서 이 두 유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사대상 경로당의 물리적 환경 특성은 평면유형에 따른 두드러진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면적의 경우 완전분리형이 가장 많은 빈도와 넓은 면적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내부 공간의 기능적 구분에 역점을 두는 평면 고유의 특성에 따라 넓은 공간의 확보가 우선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과거 흔히 아파트 단지 내 별도의 독립된 건물로 제공되던 경로당이 최근 들어서는 관리사무소나 다른 커뮤니티 시설과 함께 복합건물을 사용하는 형태로 제공되는 추세가 압도적이었으며 조사대상 경로당의 3분의 2는 성별에 따른 실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셋째, 공간변용은 전체 조사대상 경로당의 약 60%가량에서 발견되었는데 구조변경, 용도변경, 용도추가의 3가지 유형으로 범주화되었다. 완전통합형과 방거실통합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유형에서 크고 작은 공간변용이 이루어졌으며 가장 많은 빈도를 보인 완전분리형에서는 다양한 공간변용 사례가 발견되었다.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는 경로당 내부공간을 기능에 따라 구획한 평면의 경로당일수록 변용이 많이 나타났으며 주된 경향은 기능 통합에 주안점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었다. 또한 여성 노인이 경로당 이용자의 대다수를 이룸으로써 할아버지방의 불필요로 다른 기능으로 용도변경 하고 방을 함께 사용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거부감이나 불편함에 대한 불만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계획적 측면과 관련하여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의 공간 구성 및 실내환경 전반은 여전히 단조롭고 정형화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재의 경로당 관련 법규는 아주 기본적인 기준만을 담고 있어 시대적 변화에 맞게 면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들의 공간변용에서 알 수 있듯이 노인들의 공간 사용이 일반적인 계획적 통념과 다르게 나타난 것은 흥미롭다. 이는 노인들의 경로당을 찾는 목적을 비롯하여 공간 사용에 있어서의 의식이나 생활습관 같은 제반 특성이 다른 집단과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며 나아가 계획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파악과 이해가 숙지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경로당을 단순히 공동주택 부대시설의 하나로서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활성화 시켜야 할 주요 노인공간의 하나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계획도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